

충남도, 태안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6호 승인

충남도 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번째 농업 분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선정됐다. 도는 28일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이 기재부로부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6호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은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원 2.98ha 규모의 사업 면적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7억 원(자기자본 10%, 타인자본 90%)을 투입 예정이다.

펀드 결성과 운영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SPC)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씨드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 주도기업인 씨드에프앤에스가 핵심 참여 주체다.

도는 태안군은 씨드팜 자기자본금의 8%를 출자할 예정이며,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다. 태안 씨드팜은

는 첨단 스마트 재배가 가능한 재배동 2동과 관리동 1동을 비롯해 가공·유통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태안군과 씨드팜은 지난해 11월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5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40년까지 총 15년(준비 1년·가동 14년)이며, 준비 기간에는 시설 설계와 허가, 펀드 운용체계 정비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완료하고 가동 기간에는 연중 생산 체계 및 생산 동산물의 전량 매입 계획을 구축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출 방침이다.

도는 1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이어 인근 부지를 활용해 2호, 3호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승인을 통해 태안 씨드팜이 지역 지원과 민간 역량을 결집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



▲태안스마트팜조감도

하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태안 씨드팜 1호는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의 결합을 통해 지역 농업의 산업화를 앞당기는 시범 사업"이라며 "도는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태안 씨드팜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시흥시, 첫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2종 출시

'시원 연꽃청'·'가치하나 연꽃빵' 선봬

정호기 경제국장은 "이번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은 시흥의 대표 자원인 연꽃을 활용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에 한층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번 출시를 계기로 시흥시가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된 두 제품은 시흥시 사회적경제 앱(App) '시원 앱'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통해 공정무역 실천 기반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2025시흥시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개발(왼쪽이연꽃청,오른쪽이연꽃빵)

충북도, 새활용 농촌유류시설 '농소막'

NABIS 균형발전 우수콘텐츠 최우수상 수상

충북도에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유류시설 새활용의 폐 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시작한 대후폐교 새활용 사업인 '충청북도 농소막'이 지역균형 발전 우수콘텐츠 최우수로 선정돼 지방시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

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 중 우수성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제작 및 제공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소막은 숙박시설(2인실 4개, 4인실 2개) 다목적 공간인 '다함께공간', 캠핑시설 5

개 사이트, 잔디광장 등으로 가족과 연인이 함께 할 수 있



▲새활용농촌유류시설 '농소막'

고, 다함께 공간을 활용한 워크숍, 행사 등 워케이션이 가능하며, 잔디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날,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농소막을 지역의 대표 명소로 만들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구미 농촌여성, 자격증 취득으로 경제활동 기회 열다

상·하반기 전문기능교육 통해 34명 자격 취득

구미시는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올해 상·하반기 전문기능교육을 운영해 '노인실버건강지도사'와 '한국형 디저트 마스터' 2개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상반기(3~4월)에는 노인실버

건강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아이 돌봄에 필요한 교구 활용법, 체조 지도, 렉크리에이션 지도 등 실무 능력을 집중적으로 익혔으며, 1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 지역에서 돌봄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반기(11월) 운영된 한국형 디저트 마스터 과정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미에서 생산한 '구미 밀가리'를 활용한 실습형 수업으로 구성됐다. 수강생 20명 전원이 자격 취득에 성공하며 높은 교육 효과를 입증했다.

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반기(11월) 운영된 한국형 디저트 마스터 과정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미에서 생산한 '구미 밀가리'를 활용한 실습형 수업으로 구성됐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여성이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지역 농산물 활용 교육도 지속 추진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후 창업 연계도 기대된다.

한 수강생은 "구미 밀가리를 활용해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며 "자격증까지 취득해 지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여성이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지역 농산물 활용 교육도 지속 추진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나주시, 남평 '설향' 딸기 본격 출하

내년 특화작목 육성사업 선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대표 겨울 과일인 '설향' 딸기의 본격 출하와 함께 2026년 맞춤형 미래 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이뤄내며 남평을 중심으로 한 나주 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28일 지역 대표 품종인 '설향' 딸기의 본격적인 출하 소식을 전했다.

나주 딸기의 핵심 주산지인 남평읍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경 첫 수확이 이뤄졌으며 현재 출하가 이어지면서 당도와 품질이 예년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고품질 딸기 재배기술 교육 8회를 추진해 환경관리, 양액·수분 조절, 병해충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며 품질 향상 기반을 다졌다.

터는 내년부터 딸기 우량묘 자가 생산시설 확대, 육묘시설 고도화, 조기 화이분화 기술 시범, 육묘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본격 추진해 남평을 중심으로 한 나주 딸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평은 나주 딸기 재배의 핵심 지역"이라며 "공모사업 선정과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딸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나주시,남평설향딸기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사정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